

2020년도 주요업무계획

2019. 12월



문화재청

백제왕도핵심유적보존·관리사업추진단

목 차

I . 2019년 주요성과 및 평가	1
II . 정책 추진 여건 및 대응방향	5
III .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	6
1. 조사·연구를 통한 백제왕도 역사적가치 재조명	7
2. 보존·정비를 통한 백제왕도 정체성 회복	8
3. 적극적 활용·홍보를 통한 백제유산 가치 확산	9
IV . 정책 실현 후 달라지는 모습	10



2019년 주요성과 및 평가

1. 주요 성과

[1] 백제왕도 사업의 체계적 추진기반 마련

□ 백제왕도 핵심유적 부여지역 발굴조사 마스터플랜 수립

- 대부분 매장되어 있는 백제 관련 유적을 체계적으로 발굴 조사하기 위한 부여지역 11개 핵심유적에 대한 발굴조사 세부 전략 수립
- * 유적별 발굴 목적 및 범위 명확화(조사 필요지점 및 보존 지점 선별 등), 체계적 조사 전략 및 예산 계획(장단기 조사 유형 구분 및 조사기간과 비용 산정 등), 기타 연구 계획 수립 등

□ 국가 발굴현장 환경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

- 국가발굴에 준하는 학술발굴로 추진하는 핵심유적 발굴조사 현장의 환경개선을 위한 백제유적 공통된 가이드라인 마련·배포
- 3단계 경계표시(장기발굴구역, 당해발굴구역, 굴착구역 / 고정형, 이동형), 조사현장 유형별 안내문 규격 및 문안 표준안 마련 등

□ 백제왕도 정체성 회복을 위한 기초 고증연구 추진

- 백제왕도 핵심유적 정비를 위한 진정성 확보 및 완성도 높은 유적 정비를 위한 기초 고증연구 수행('17년 이후 11건 53.2억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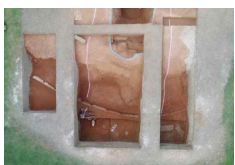
고증연구 사업명	추진기간	예산액(억원)
익산 연동리 석불두상 원형복원 학술조사	2017. 6.~2018. 5.	1
익산 미륵사지 복원 고증연구(4차)	2017. 4.~2018. 9.	6
공주 공산성 건물지 고증 복원 정비계획 수립	2017.12.~2019. 5.	3
부여 왕흥사지 복원 고증연구	2018. 3.~2019. 8.	1.5
부여 부소산성 기록화사업	2018. 6.~2019.12.	4
익산 미륵사지 복원 고증연구(5차)	2018.10.~2021.12.	19
공주 공산성 왕궁유적 복원 고증연구	2018. 5.~2019.12.	10
공주 송산리고분군 제단유적 연구	2018. 5.~2019.12.	2
부여 능안골고분군 주변지역 백제고분 분포조사	2019. 3.~2019.12.	0.7
공주 공산성 문화재구역 검토 용역	2019. 3.~2020. 2.	2
공주 정지산유적의 성격 고증연구	2019. 4.~2020. 4.	4

□ 「제2기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·관리 자문위원회」 구성·운영

-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·관리 사업의 학술적 완성도 제고 및 효율적 추진 등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 자문(임기: 2년, '19.8.1.~'21.7.31.)
- * 구성 : 20명(역사학 3, 고고학 4, 건축학 5, 조경 2, 도시·경관 2, 보존과학 2, 홍보·활용 2)

□ 발굴조사를 통한 유적 성격 규명 및 정비 기초자료 확보

- **익산 쌍릉 소왕릉** 발굴조사를 통한 석실 및 묘도 등 구조 확인(4.6억원)
 - * 반지하식 횡혈식 석실 내부 및 구조와 묘도 등을 확인하고 무자비(無字碑) 형태의 묘표석 2개 발견, 소왕릉 관련 기초 연구자료 확보
- **공주 수촌리 고분군** 금제 이식 등 다수 유물 출토(5억원)
 - * 백제시대 중대형 고분 확인, 다수 유물 출토로 고분군 세력 양상 파악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
- **부여 핵심유적** 발굴을 통한 사비기 백제문화층 확인 등 연구자료 확보
 - **화지산 유적** 사비백제 건물지 및 계단식 대지조성 확인(2억원)
 - * 발견 수량이 많지 않은 고대(백제) 건물지 다수 확인, 건물 벽체 구조의 하나로 추정되는 탄화 부재 발견, 고대건물 고증 기초 연구자료 확보
 - **부여 능안골 고분군** 주변 백제고분 분포 추가 확인(2.7억원)
 - * 현 사적지 주변에서 백제고분 130여기와 100여점의 고분석재 등 확인, 사비백제 시기의 능 및 귀족 고분의 형태와 분포 범위 등을 통한 당시 능묘제도 파악의 기초 연구자료 확보
 - **부여 능산리 사지와 고분군** 사이 백제문화층 확인(3억원)
 - * 사비백제 왕릉과 관련되어 있는 능산리 사지 동편에서 기와가마층과, 대규모 건물 조성층, 도로시설로 추정되는 대규모 성토층이 확인, 백제 능묘제도 파악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
 - **부여 나성(북나성)** 연결 양상 확인(2억원)
 - * 미확인 북나성 성벽 진행방향 확인, 나성의 전체적인 구조 파악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
 - **부여 가림성 동북편** 백제기 집수시설 확인(2억원)
 - * 조선시대 수구 하부에서 백제시기 집수시설과 통일신라시대 성토층이 확인되는 등 성벽 및 집수시설 정비를 위한 기초자료 확보

				
쌍릉 묘도 및 호석	수촌리 출토 금제 이식	화지산 출토 탄화 건축부재	능산리 주변 성토층과 내무묘역	북나성 성벽 노출 전경

[2] 백제왕도 핵심유적의 체계적 보존·관리사업 추진

☐ 조사·연구 및 정비·활용을 위한 유적 내 사유지 매입

- 공주 및 부여 토지매입 추진 현황 : 20필지 78,004㎡, 230.5억원
 - (공주) 송산리고분군 1,520㎡ 2.5억원, (부여) 관북리유적 및 나성, 군수리사지, 왕흥사지, 화지산유적, 가림성, 구드래일원 내 사유지 등 76,484㎡ 228억원
- * 부여 관북리 유적의 대규모 토지매입을 LH와 업무협약을 통해 토지비축사업으로 추진 (LH에서 '19~'20년 매입 후 5년 분할 상환 / 161,488㎡, 230여 가구 대상)

☐ 연차별 계획에 따른 유적 정비

- 사전·예방적 보존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및 방재시설 설치
 - 공주 공산성 성벽 거동 측정 모니터링(0.21억), 부여 정림사지 석조여래좌상 및 오층석탑 정기계측(0.4억), 부소산성 재난방지시스템 구축(7.1억), 익산 미륵사지 당간지주 보존처리(0.7억)
- 온전한 보존·관리로 백제유산 역사성 회복
 - 부여 부소산성 반월루 보수(0.9억), 나성 성곽정비(4.3억), 가림성 성벽정비(1.4억), 정암리와요지 보존처리 및 보호각 설치(11억), 익산 왕궁리유적·쌍릉·토성 발굴지 정비(14.3억/3억/5억), 미륵사지 광장 전면부 정비(25.7억) 및 건물지 기반 정비(10억)
- 역사문화경관 정비 및 관람환경개선 사업 추진
 - 공주 공산성 경관조명 개선(4.5억) 및 관람환경개선(10억), 송산리고분군·고마나루 주차장·수목 정비(14.8억/11.8억), 익산 왕궁리유적 후원 조경정비(5억) 등

[3] 지속가능한 활용 체계 마련으로 백제문화유산 가치 증진

☐ 「백제문화유산주간」의 성공적 개최에 따른 백제 고유의 브랜드 구축

- 중앙정부(문화재청 및 연구소·문체부 국립박물관), 지자체(공주·부여·익산시), 민간기관(백제센터, 국립박물관)과 협업하여 행사 추진
- * 백제왕도 중요유적과 출토유물 연계한 「백제문화유산주간」의 대표 프로그램 개발·운영

☐ 보존관리사업 방향성 정립 및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국제학술대회 개최

- 국내 및 일본·중국 등 각 기관과 학계의 고고학 성과를 통해 백제왕도 핵심유적의 보존·관리 정책 수립 관련 검토 및 세계유산적 가치 대국민 공유
- * 학술대회 개요 : 9.19.~20. / 국립고궁박물관 강당 / '백제왕도의 경관'

☐ 백제유산 활용을 통해 대국민 향유기회 확대

- 세계유산 지역 안내판 일제 정비(3억원)
 - * 전문가 위주의 어렵게 표시된 안내판을 모든 국민이 쉽고 재미있게 일제 정비
- 백제유적 발굴조사 성과의 지역주민 등 현장공개(4회)
 - *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학생 및 당진문화원 지역민 등 별도 설명회 지속 개최
- 첨단시설을 활용한 다양한 전시 콘텐츠 마련 추진
 - 공주 공산성 '역사관' 건립('19~'20년), 익산 왕궁리유적 전시관 증축 설계

2. 평가 및 반성

[1]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사업에 대한 가시적 성과 미흡

- ☐ 백제왕도 유적이 발굴되지 않은 매장문화재 위주이며 문헌 등 기록에 한계가 있어, 발굴조사 및 학술연구 등을 체계적으로 시행하여 백제왕도 유적에 대한 역사적 가치 고증을 위한 노력 필요
- ☐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사업 추진에 대한 가시적 성과 도출을 위한 사업 집행률 제고를 위한 개선노력 필요
 - 보존관리 사업 초기 단계로 토지매입 및 조사연구 등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, 사업 시행에 대한 성과를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조속한 사업집행 등 매년 계획된 성과 도출 필요
- ☐ 백제왕도 핵심유적에 대한 발굴조사 및 고증연구, 유적정비 등의 성과를 국민들과 공유하여 백제유적에 대한 인식제고 및 관심유도 필요

[2] 백제유적에 대한 국민이 상시 향유할 수 있는 활용 정책 필요

- ☐ 백제유산을 대상으로 한 대국민 참여 행사는 유관기관 협동으로 시행되고 있으나, 수요자를 중심으로 한 질적 향상 필요
- ☐ 한시적으로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유산이 아닌 상시적으로 백제유산에 대해 국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활용 콘텐츠 마련 필요



정책 추진 여건 및 대응방향

1. 정책추진 여건

- ☐ 세계유산 등재 이후 백제유적 관광자원화에 대한 지역민의 기대 증대
 - ‘백제역사유적지구’ 세계유산 등재 5주년, 보존관리 사업 추진 3년차를 맞아 사업의 가시적 성과를 통한 백제유적의 관광자원화에 대한 지역민 기대 증대
 - 세계유산 등재 5주년, 추진단 발족 3년차를 맞아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길 원하는 요구사항 증대
- ☐ 백제왕도 보존·관리사업 집행을 저조에 대한 대외 지적
 - 보존관리 사업 기본·시행계획에 따라 연차 추진되어야 하나, 국회 및 기획재정부 등 외부의 집행을 저조에 대한 지속적 지적

2. 대응 방향

- ☐ 백제유적 보존관리 및 홍보·활용을 통한 가시적 성과 도출
 - 백제유적이 지역개발의 걸림돌이 아닌 지역의 랜드마크이자 관광자원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사업의 가시적 성과 도출을 위한 사업 추진 및 홍보, 활용 프로그램 개발 등 추진
 - 백제유적을 국민이 항상 느끼고 즐길 수 있으며, 수요자가 만족할 수 있는 활용 콘텐츠를 마련할 수 있도록 변화
 - 백제유적 보존·정비 사업을 지역민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 연내 집행을 위한 노력 및 성과에 대한 활발한 홍보활동 전개

III

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

전략 목표

**백제왕도 핵심유적 체계적 보존·관리를 통한
세계적 유산의 가치 확산**

성과 목표

◇ 조사·연구를 통한
백제왕도 역사적가치
재조명

◇ 보존·정비를 통한
백제왕도 정체성
회복

◇ 적극적 활용·홍보를
통한 백제유산 가치
확산

세부 과제

- 백제왕도 유적 체계적
정비를 위한 기반 마련
- 진정성 있는 보수·복원·
재현을 위한 고증연구
추진
- 백제왕도 실체규명 및
기초 연구자료 확보를
위한 발굴조사 실시

-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
체계 강화
- 백제왕도 핵심유적
체계적 보존·관리사업
추진
- 백제유적 보존·관리사업의
성과 가시화를 위한
집행률 개선방안 마련

- 백제왕도에서 펼쳐지는
제3회 백제문화유산주간
개최
- 백제유적 학술연구 성과
공유를 위한 국제학술
대회 개최
- 고품격 백제왕도 핵심
유적 전시 콘텐츠 마련
등 추진

성과목표 1

조사·연구를 통한 백제왕도 역사적가치 재조명

□ 백제왕도 유적 체계적 정비를 위한 기반 마련

- 백제왕도 공주·익산지역 핵심유적(14개소) 발굴조사 마스터플랜 수립(1억원)
 - 체계적 조사를 위하여 그간의 발굴조사 성과 및 학술연구자료 분석, 각 분야별 전문가 인터뷰 등 수행, 발굴조사 방향과 세부 전략 수립
- 부여지역 핵심유적 기준점 및 보조점 설치(국비 2.1억원/총 3억원)
 - 부여지역 유적과 발굴조사 후 유구의 도면상 위치와 실제 위치의 정합성을 위해 유적 내 기준점 및 보조점 측량 및 표석 설치(기준점 49, 보조점 51)
- 공주 핵심유적 기존 자료의 아카이빙 및 기록화(국비 3.8억원/총 5.5억원)
 - 웅진백제~근현대 거점인 공주 공산성 관련 자료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
 - 공주 수촌리 고분군의 2010~2019년 발굴성과 등 자료의 정리 및 기록화

□ 진정성 있는 보수·복원·재현을 위한 고증연구 추진

- 익산 미륵사지 5차 복원고증 연구 추진(국비 9.1억원/총 13억원)
 - 미륵사지 목탑, 금당, 강당 및 승방 고증 기본연구 수행
 - * 익산 미륵사지 유적 특성 및 주변 환경을 고려한 복원정비계획 수립을 위하여 2008년부터 국립문화재연구소 대행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추진 중
- 공주 공산성 왕궁유적 고증 심화연구(국비 3.5억원/총 5억원)
 - 고증연구를 통해 공산성 왕궁 건물지 등의 유적 복원·정비를 위한 학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고증연구 실시(1차 기초 고증연구/'18.5월~'19.12월)

□ 백제왕도 실체규명 및 기초 연구자료 확보를 위한 발굴조사 실시

- 지하 물리탐사 등 비파괴 조사를 통한 매장 유구 확인(국비 3.15억원/총 4.5억원)
 - 송산리 고분군, 능산리 고분군, 능안골 고분군의 실효성 있는 발굴조사를 위하여 사전 고분 분포 현황 등 물리탐사 실시
- 부여지역 발굴조사 마스터플랜에 따른 발굴조사 실시(국비 26.7억원/총 38.4억원)
 - 백제 사비기 도성 및 배후 산성, 외곽성, 묘역 등 핵심유적의 실체 규명 및 정비 기초 연구자료 확보를 위한 발굴조사 실시
 - * 부소산성 남문지 및 남성벽 시발굴, 화지산유적 건물지 발굴, 부소산성-서나성 접속양상 확인 시발굴, 가림성 집수구 발굴, 능산리고분군 중앙고분군 발굴, 구드래 진입공간 발굴

성과목표 2

보존·정비를 통한 백제왕도 정체성 회복

□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 체계 강화(유네스코 권고사항 이행 등)

- (모니터링 시스템)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계측시설 설치(국비 0.6억원/총 0.9억원)
 - 공주 송산리고분군 및 부여 능산리고분군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(원격제어) 및 고분 내부 환경 변화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, 공주 공산성 및 부여 가림성 성벽 거동 측정 모니터링을 통한 선제적 관리
- (방재시설 설치) 부소산성 내 목조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(국비 0.15억원/총 0.22억원)

□ 백제왕도 핵심유적 체계적 보존·관리사업 추진

- (토지매입) 유적 관리·활용시설 조성을 위해 공산성 및 관북리유적 등 문화재(보호)구역 내 전략적 사유지 매입 : 11개 유적 190,145㎡(국비 277억/총 395억원)
 - * 토지매입 대상지 전체에 대해 LH 협의를 통해 관북리유적과 같이 토지비축사업으로 추진 협의
- (기본계획 수립) 정비·활용을 위한 단계별 기본계획 수립(국비 2.9억원/총 4.1억원)
 - 부소산성 및 능안골 고분군 역사공원 개선 기본계획 수립 등 4건
 - 부여 구드래 일원 지정구역 고찰 및 토지매입 등 정비방안 수립
- (보수정비) 성곽 정비 및 발굴지 정비 등 22건(국비 53.7억원/총 76.7억원)
 - * 익산 쌍릉 발굴지 정비(대왕릉 및 소왕릉) 및 대왕릉 인골 재매장 예의 행사 거행
- (경관 및 관람환경개선) 수목정비 및 탐방로 정비 등 4건(국비 6.3억원/총 9억원)

□ 백제유적 보존·관리사업의 성과 가시화를 위한 집행을 개선방안 마련

- (집행률 제고) 가시적 성과 도출을 위한 실효성있는 집행을 개선방안 마련
 - 추진단과 지자체 간 협의체 구성을 통한 사업 추진사항 지속적 점검 및 활발한 소통을 통해 집행 애로사항 해결 추진
 - 토지매입 대상지 전체에 대해 LH 협의를 통해 토지비축사업 추진 협의
 - * 부여 관북리 유적 LH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토지비축사업 추진 중(2년 LH 매입 후 5년 분할 상환)
 - 대규모 사업의 경우 기본계획-설계-시공 등 순서로 연차 사업비 반영
- (주기적 현장점검) 집행·부정수급 점검, 지침 등 준수사항 등 현장점검
 - 분기별 1회 현장 점검 및 집행이 부진한 중점관리 대상사업 매달 점검

성과목표 3

적극적 활용·홍보를 통한 백제유산 가치 확산

□ 백제왕도에서 펼쳐지는 ‘제3회 백제문화유산주간’ 개최(7.8.~7.14.)

- 중앙정부, 지자체, 민간단체 등 10여개 기관 협업을 통해 백제문화유산 현장에서 체험, 전시, 교육, 공개 등 국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
 - 행사 계획 수립(4월), 홍보(5~7월), 행사 개최(7월), 평가 및 환류(10월) 등
 - * (중앙정부) 문화재청 추진단 및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, 문체부 국립 공주부여·익산박물관, (지방정부) 공주시, 부여군, 익산시, (민간단체) (재)백제세계유산센터, 정림사지박물관, 발굴조사기관
 - 지난 행사의 만족도조사 결과 및 국민생각함을 통해 수립된 의견 등을 반영하여 수요자 중심으로 행사 프로그램 개선 운영
 - * ‘녹턴’을 ‘백제문화유산주간’ 대표 프로그램으로 고도화, 행사 참여기관 및 프로그램 다변화, 홍보매체 다각화(지상파, KTV 등) 및 백제주간 전용 홈페이지 구축 등

□ 백제유적 학술연구 성과 공유를 위한 국제학술대회 개최(10월)

- 최근 발굴조사 및 고증연구 등 성과에 대한 국민 공유를 통한 백제유산에 대한 인식 제고 및 문화유산 현장에 관한 관심 유도
 - * 최근 연구성과에 대해 동아시아와의 비교 분석·토론 등을 통해 백제문화유산의 가치 재조명과 올바른 보존·관리 정책 수립 계기 마련

□ 고품격 백제왕도 핵심유적 전시 콘텐츠 마련 등 추진

- (첨단시설 활용 전시) ICT 기술 활용 체험 전시관 건립(‘19~’22년 국비 35억원/총 103억원)
 - * 익산 왕궁리 유적 전시관 증축 및 리모델링, 공주 공산성 ‘역사관’ 건립
- (세계유산 탐방거점 조성) 공주 지역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(국비 28억원/총 4억원)
- (발굴 유물 공개·전시) 상주 장기 발굴조사 현장 출토 유물 임시보관과 학계 전문가 및 국민들에게 공개·전시를 통한 홍보(국비 5.6억원/총 8억원)
 - * 공주 송산리 고분군, 부여 관북리 유적 발굴조사 현장 2개소
- (발굴성과 현장 공개) 백제유적 발굴조사 성과의 대국민 현장공개
 - * (‘19년) 4회 → (‘20년) 6회로 확대 추진 / 능산리고분군 발굴조사 성과 등 공개

IV 정책 실현 후 달라지는 모습

- 발굴조사 및 고증연구 등을 통해 백제왕도 역사적 가치 재조명 및 체계적 보존·정비기반 마련
 - 매장문화재 위주의 백제유적에 대해 발굴조사와 고증연구 등을 통해 백제 후기 웅진기 및 사비기 왕도의 역사적 사실에 관한 지속적 연구로 향후 체계적이며 명확한 보존·정비 사업을 위한 기반 마련
- 세계유산에 걸맞는 국제적 수준의 보존정비의 본격 추진으로 백제왕도 정체성 회복 등 가시적 성과 도출
 -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 체계 구축
 - 유적 관리 및 활용시설 조성을 위한 사유지의 전략적 매입과 기본계획 수립, 역사문화경관 정비 및 발굴지 정비 등 보수정비사업 추진
 - 지자체와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등을 통한 개선방안 마련으로 사업집행률 제고
-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수요자 중심의 상시 백제유산 향유 프로그램 운영으로 국민 인식 및 만족도 제고
 - 백제문화유산주간 정착으로 세계유산인 백제유적의 중요성을 더 쉽게 이해하고 향유할 수 있는 기회 제공
 - 백제유적 탐방로 정비 및 활용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한 국민 편의 제공
 - ICT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체험 전시 콘텐츠 제공을 통해 학습의 장으로서 백제유산에 대한 이해도 증진 및 향유를 통한 국민 만족도 제고
 - 발굴성과 현장 공개 및 유물 전시를 통해 백제유적에 대한 이해 제고 및 다양한 볼거리 제공 등 국민 관심 유도